

기고

김준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장



‘블랙 스완(Black Swan)’은 과거 통계로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안기고 지나고 나서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되는 극단적 사건을 말한다. 경영학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제시한 이 개념은 과거의 데이터와 정형화된 방식만으로는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의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은 지정학적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초대형 재해, 초고령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복합적 충격 속에 서 있다. 여기에 고령 농업인의 대규모 은퇴, 후계자 부재, 예기치 못한 경영 위기와 농지 가치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농촌 현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늘 안고 살아가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농업과 농촌의 뿌리라면 이는 단연 ‘농지’다. 농지는 국가 식량 주권을 지키는 전략 자산이자 농업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다. 그럼에도 작금의 현실은 농지를 사고자 하는 이가 없거나 가격 차로 거래가 활발치 못하게 되면서 방치

‘블랙 스완’ 시대, 농지은행 패러다임 전환

농지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태이다. 상황이 심화되면 그 피해는 개별 농가가 아닌 농업 기반 전체의 와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농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지은행사업의 역할도 매우 커지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블랙 스완’이 덮쳐도 농지를 통한 농업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내는 ‘선제적 충격 흡수 안전판’으로 농지은행사업이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농지 시장 안정을 위한 ‘완충 지대’ 확대가 필요하다. 농지 거래가 위축되거나 급격한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농지은행이 공공의 매입·비축 기능을 통해 시장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축사업은 평상시에는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와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지원하는 수단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농지 가격 급락과 황폐화를 막는 안정장치가 될 수 있다. 시장이 위축될 때 공공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농지의 안정적 이용과 농촌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1차 안전판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경영 위기 극복력, 즉 회복탄력성의 확보다. 현재 농가 위기 상황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환매권이 보장된 ‘경영회생지원사업’이 대안이다. 예기치 못한 재해나 부채 증가 등으로 농가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운용과 신속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가가 일시적인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경영 정상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든든한 재기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와 글로벌 시장 경제에 대비해 식량 안보 논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는 농지은행사업 전반의 확대와 연결된다. 식량 안보는 단순한 먹거리 수급을 넘어, 지정학적 위기나 글로벌 공급망 충격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는 최종 안보 방어선이다. 극단적인 기후 상황과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기준과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이용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

다행히 실무적인 환경에서 고무적인 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변화하는 농지시장과 농업 여건에 대응해 농지은행사업의 규모와 정책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농지를 단순한 거래 대상이 아닌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바라보는 정책적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는 늘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타고 예고 없이 찾아온다. 선제적 대응 체계 없이는 위기 발생 시 농업인의 삶터와 농지를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농지은행사업이 ‘블랙 스완’ 급의 충격에서도 유연하고 튼튼한 안전판으로 제 역할을 할 때, 대한민국 농업은 그 어떤 거시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위기 대응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농지은행사업이 농업인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 식량 안보를 지키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역할 확대에 중점을 모으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